

experience  
**Life As Mission**

141st, Fall, 2021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인 터 서 브 프렌즈

난민으로 오신 예수님 \_ 조샘 대표

농사에서 한 수 배웁니다 \_ 박천민 선교사



인터서브 필드

\_ 인도 : 아픔 뒤 더 선명히 보이는 것은

## ‘창조세계 돌봄 Creation care’ 은

청지기로서 지구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연과 환경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뿐 아니라  
인간인 창조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고  
더불어 회복을 소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안에도 기록하셨습니다.”

- 마틴 루터



# contents

##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난민으로 오신 예수님 \_ 조샘 대표
- 08 농사에서 한 수 배웁니다 \_ 박찬민 선교사
- 12 창조적인 결혼 생활 \_ 송기태 부대표

##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6 미션얼 패밀리 \_ 하선 매니저

##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9 아픔 뒤 더 선명히 보이는 것은... \_ 유정희 선교사
- 24 미션얼 북 \_ 프론티어 선교학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 난민으로 오신 예수님

조샘 대표

“난민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떠돌게 된  
나그네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378명이 8월 26일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서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이 며칠 간의 과정 가운데 저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2018년 제주도에서 예멘 내전으로 인해서 500명이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사회 전체가 들끓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프간 난민 400여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데다, 대선 정국인 것을 생각한다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서 정치기들과 언론이 지혜를 발휘해주었습니다. 이들을 “난민”으로 프레임 하지 않고, 우리 한국 정부와의 조력자로서 이들을 구출하는 것으로 공식 발언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위기 상황의 긴박함으로 고려해서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해 준 것도 놀랍지만,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난민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떠돌게 된 나그네들입니다. 전 세계 난민은 이제 1억에 육박합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가운데, 약소국 내에서 발생하는 내전이나 국가 간의 국지전은 늘 발생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재난과 가뭄 역시 기후변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난민은 금세 해결할 숙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글로벌 현상이며, 선교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국제 난민 협약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난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500명 신청자 가운데 단 두 명 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지원이 있으나 실제 받아들여지는 것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UN 난민기구에서 조사한 서베이에서 국민 중 난민 수용 찬성은 33%에 불과했고, 53%가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싫다는 이기적인 이유였지만, 이슬람권의 모든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생각하는 이슬람 포비아도 큰 몫을 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는 수만 명 규모의 난민을 공식적으로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정착 시스템을 가동해왔습니다. 터키, 그리스, 말레이시아, 레바논, 요르단 등의 나라들도 수만 명의 난민을 받아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아주 이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 포비아를 확산하는 이들이 종종 크리스천들과 교회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는 셈이니, 이번에 들 어온 아프간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도울지가 우리에게 학습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이 많고 이웃을 환대하는 한국 고유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이런 변화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정치 난민으로 지냈습니다. 야곱의 가족 역시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으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기뿐 아니라 신약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난민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조차 모여서 산 날만큼 난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구약의 많은 구절은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하는지를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윤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07년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를 흘렸던 땅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에게 다가온 건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아프간 선교의 문은 닫혔습니다. 무리해서 찾아가려던 이들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강도당해 죽어가는 이에게 선한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난민과 같이 극심한 곤경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 하나, 우리는 강자나 시혜자가 아니라, 약자로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든 선한 이웃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당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가난을 경험했고, 이 어려움 가운데 5백만 명의 사람들이 근대사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을 무슬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보며, 마음을 함께함이 남을 도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 둘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중심으로 사고함이 중요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아닌가를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즉,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여당의 발표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난민들을 “한국 정부의 조력자”로 소개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가기가 어렵게 된 점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강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서 가운데 점령군의 조력자라는 낙인은 이 귀환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큼니다.

### 셋째, 총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도 만난 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피난처가 요구되며, 여비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

시 동안의 환대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장기로 있기 원하는 사람들의 정착이며 다양한 필요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강도당한 이를 돕지 않고 피해간 두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든 것에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정한 시체가 될 수도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맹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이슬람이나 불교 등등 종교로 이해해왔고 전도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오히려 방해되는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의 대상이기 이전에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이번 난민들은 어린이부터 여성,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한명 한명이 한 인간으로서 총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심으로 대화를 마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만이 남아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외적인 성명을 내거나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난민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동행하는 구원의 비밀을 함께 생각하고 발견할 때입니다. 이 구원의 얘기를 함께 나눌 크리스천들을 찾습니다. 




 ☐ 인터서브 칼럼

# 나그네들과 함께 사는 법을 농사에서 한 수 배웁니다.

박천민 선교사

2년 전, 저는 서울에서 주로 무슬림들을 돌보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만남을 갖던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방으로 떠나곤 했는데,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19년 10월, 이곳 순천으로 이주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꿈을 순천 외곽에 자그마한 텃밭과 함께 터 잡으며 마침내 이루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각종 채소의 모종들과 씨앗들이 종묘사에서 우리 집 텃밭으로 이주해옵니다. 오이, 고추, 상추, 가지, 호박, 깻잎, 쑥갓, 시금치 등 각양각색들이 덩실덩실 어우러지는 모습들은 마치 각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식물들이 자란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지 않고 햇빛이 없다면 모든 농사는 수포가 됩니다. 이 자연의 순리는 이주민 사역자로서 얼마나 겸허해야 하는지 경각심으로 다가옵니다.



## 추수보다 기경<sup>起耕</sup>

잘 아시는 바처럼 농부는 봄이 되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밭거름을 주고 땅을 기경하는 일은 한 해 농사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좋은 밭(마13:8)이 아니면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역현장에서는 부지불식간에 기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추수와 열매에 급급한 저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고전3:6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말씀처럼 열매는 하나님의 몫임을 알고 저의 몫인 기경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순수의 마음을 지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돌과 잡초를 뽑아내고, 밭거름을 충분히 주며 기경하면 좋은 땅이 되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신통함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는 필경 좋은 열매가 맺히는 정직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낫선 땅에서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척박해져 가는 이 주민들은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며 내심 요청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 농부의 기다리는 지혜

기경한 땅에 채소 씨앗들을 뿌리면 대개는 약 1주일 전후로 싹이 트며 방긋 웃음을 선사합니다. 마치 새 생명의 신비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종종 이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망각하고, 자연의 넉넉함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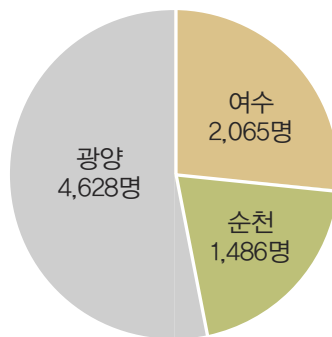


보이곤 합니다. 씨앗을 뿌린 다음날 혹시 하룻밤 사이 싹이 트지 않았을까? 하고 심겨진 씨앗들을 바라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황급한 마음이 발동하여 심겨진 씨앗을 파내 보려는 우스꽝스러운 특심을 내기도 하고, 갓 태어난 어린 새싹에 왜 빨리 크지 않느냐며 보채기도 하지요. 조급한 마음으로 농사일에 접근한다면 당신은 바로 초보 농부임이 분명합니다. 충성스런 농부는 기다릴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농사일을 통해 농부의 마음을 더욱 갈고 닦아서 이주민들을 섬기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주민들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 꾀부리지 않는 착하고 충성스런 농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 순천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감소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2021년 7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여/순/광 지역에 8,17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신분으로 다채롭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만날 때마다, 마치 주님의 정원 들녘에 적막하게 피어 있는 들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까이서 만나는 이주민들은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벡, 캄보디아, 네팔, 터키 등에서 왔습니다. 원격으로 시리아와 이집트 형제들도 만나고 있으며, 최근엔 멀리 남미 베네수엘라 서 온 형제도 만났습니다. 이제는 지구촌 사람들이 점점 더 더불어 가는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외로움을 안고 있다지만 하물며 부모와 형제,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할지 이해하며 저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이들의 현실적 어려움의 첫 번째는 한국어 배우기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sup>native speaker</sup>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면과 비대면을 넘나들며 그들을 섬기는 중입니다. 고단한 일상을 계속하다 보면 당연 육체의 상함도 뒤따르지요. 적절한 병원 치료를 위해 네이티브의 동행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집 텃밭에서 나온 싱싱하고 우수한 유기농 야채들을 나



여/순/광 지역 이주민 수  
총 8,179명

눔도 작지만 큰 행복입니다. 특별히 멋진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이주민이요, 나그네 되신 분들과 밥을 나누어 먹고 함께 수다 떨고, 기회가 되면 운동도 같이 하는 일들이 저희 부부의 취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 받아 이 땅에 기꺼이 찾아와준 이주민들을 모른 척한다면 참된 경건(약1:27)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되겠지요. 부족하게나마 나그네들을 마음으로, 정성으로 함께하며 점점 그들이 우리의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립니다. 머지않은 날 저들의 가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분들을 바라볼 때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卍





# 창조적인 결혼 생활

송기태 부대표



지난주, 큰딸 유진이가 결혼을 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다. 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식 주례를 서겠다고 자원했었다. 유진이의 흔쾌한 허락으로 나의 여섯 번째 주례는 딸의 결혼식이 되었다. 경력직 주례자임에도 준비하는 데 애를 먹었다. 긴장했는지 잠을 설치기까지 했다.

결혼 주례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결혼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결혼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예식이라면, 주례사는 어떤 내용을 담아 내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잠결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패러디한 “창조적인 결혼 생활!”

딸의 결혼식을 목상하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당부를 전해본다.



## 결혼 :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이어가는 것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결혼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명제에 부합한 결혼 생활 방식을 하게 되니까요. 결혼 생활의 출발은, “결혼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로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결혼은 하나님께 졸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처음으로 만드셨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creator 결혼 제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매우 창조적인 creative 제도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필요 이전에, 창조주께서 세상의 창조를 계속 이어가는, 재창조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재창조를 영어로는 re-cre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레크리에이션이 익숙하지요?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듯이,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데 가장 창조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생했습니까? 또 그 결혼 제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 냈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도 창조적인 삶입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물질과 질서를 활용하여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인간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신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



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결혼은 ‘창조적인’ 의미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께서<sup>creator</sup> 창조적인 방법으로<sup>creative</sup> 결혼 제도를 만드셨으니까요.

### 창조적인 결혼 생활 1.

####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적에 관한 것’이라면 결혼 생활도 창조적으로<sup>creative</sup>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창조적’이란 말 안에 결혼 생활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해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창조적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후 같은 교회 청년부의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은 했습니다. “기태 형제는 왜 승연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신앙 인격이 훌륭해서요.” 멋진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저의 대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럼 뭐지?’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나에게 보내 주신 이유는, 내가 사랑해야 할 한 여자를 보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서 저는 네 자녀를 얻었고, 여러 가지 많은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는데, 그 바람만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혼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한다면, 그 배우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거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목적이 빗나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빗나가게 됩니다. 결혼은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빗나가면 서로 불행해지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를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일일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다양한 방식을 창조적으로 생각해 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 창조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서로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창조적인 일들이 부부 안에서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 창조적인 결혼 생활 2

#### 부부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창조적인 부부 생활, 그리고 창조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와 가정은,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창조적인 섬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적이란 말 안에는 그 혜택이 당사자 안에서 머물지 않으니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수십억의 인류를 만들었고, 또한 그 인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재창조해서 서로에게 기여했으니깐요.

오늘 신랑 신부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창조하셨고 또한 자신들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두 사람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하여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 미션얼 Family

family

## 하선 매니저(재정부)

*Missional Family*

인터서브 본부에 새로운 식구가 늘었습니다. 늘 열심과 겸손으로 인터서브를 섬기는 재정부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다줄 하선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본인과 가족들을 소개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눈부신 5월의 마지막 날부터 함께 하게 되었어요.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싶은 하선입니다. 저희 가족은 요셉처럼 꿈꾸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 오빠였던 남편과 보물 1호 아들, 보석 1호 딸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Q. 인터서브에는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강사 관리 및 교육, 인사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출산과 육아로 공백기가 있었지만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인터서브로 오기 전 최근 몇 년간은 초등학교에서 파트타임 학습 도움 교사로 일했습니다.



**Q. 인터서브 재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맡게 되셨나요?**

후원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보험 관련 업무와 본부의 기금운영 업무 등을 맡고 있고, 재정부가 진행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Q. 교회에서 본 선교단체와 실제로 일해 본 선교단체 어떤 것이 달랐나요?**

밖에서 볼 때 선교단체의 이미지는 매우 홀리하고 열정적이며 조금은 딱딱한 이미지였어요. 실제로 일해보니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서브는 생각보다 더~ 홀리하고, 더~ 더~~ 열정적이며, 유연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최고! 두 마디로 매우 바쁨!

**Q. 앞으로 인터서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3개월 남짓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서브의 능력자 매니저들과 귀한 파트너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후원자님들의 삶을 보며 매일매일 감동하고 도전받고 있어요. 인터서브 안에서 소

중한 한 분 한 분의 특별하고 귀한 모습들을 매일 발견하고 닮아가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Q. 하선 선생님에게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요?**

몇 년 전 남아공으로 가족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2주간의 짧은 시간이었고 아이들은 어렸지만, 주제 성구 선정부터 스터디, 펀드레이징, 정기 기도 모임 등 매우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고 그분들의 삶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에게 선교적 삶이란,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프렌즈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오전 11시 50분이 되면 매일 알람이 울립니다. 12시 정오 예배 준비를 알리는 알람이에요. 가장 바쁘고 분주한 시간, 업무를 멈추고



기도 책자 속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과 프렌즈, 그리고 본부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언제나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서브는 고민하고 도전하며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기도, 사랑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많.관.부.

**Q.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인터서브와 함께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저는 받은 은혜가 참 많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저희 가정되기를, 맡겨진 일들을 주님 주신 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언제나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서브 재정부를 소개합니다.**



- ▶ 하선 매니저 : 후원자 관리 / 보험 및 기금 운영  
finace3isk@gmail.com
- ▶ 오미연 매니저 : 본부 재정 / 종교인 과세  
finance7isk@gmail.com
- ▶ 임민정 매니저 : 선교사 재정 관리 / 펀드레이징  
finance.isk@gmail.com

## 아픔 뒤 더 선명히 보이는 것은...

유정희 선교사

이제 나는 이 땅에 남은 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실현하며 살아갈지, 이 땅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한다.



## 델타, 그 이후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이 모처럼 너무 반갑게 느껴지는 날이다. 세계가 변이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지 인도는 그 추세가 많이 수그러들었다. 지방정부 선거로 인한 정치적 집회들과 힌두교의 대대적인 종교 행사 등으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날 것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의 쓰나미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코로나 상황은 지난 5월과 6월 완전도시 봉쇄로 서서히 추세가 감소하였다. 현재 지방 정부들은 부분 봉쇄의 연장을 선언하였으나, 실상 일상의 모든 생활과 활동들이 가능하다. 한때 하루 사십만 명이던 확진자가 이번 주는 평균 삼만 육천 명으로 근 1/10로 줄어든 상황이다.(2021년 8월 기준)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듯했으나 다시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옆에 앉은 누군가가 마스크 착용치 않았으면, '마스크 쓰세요!'라고 차장이 크게 말하거나 주위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 고아원에 원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 일자리를 찾아 애태우는 청년들과 노동자들, 취약한 여성과 화상 수업이 불가능해 2년 가까이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슬럼 공동체와 시골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거센 태풍이 지나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듯, 무서운 델타는 큰 재해를 남겼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계 내의 리더나 목사님들이 사망했는지 누구도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재정의 불균형, 정치적 불안과 균열로 사람들의 마

음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현재 도시에는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골에는 아직 언제 공급 가능할지 모른다.

델타의 출현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인도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마음을 모아주었다. 기독교 NGO를 통해 이 땅의 회복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사랑과 도움이 각처의 현지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곳 리더들 역시 최선으로 각자의 공동체와 양 떼들을 섬겼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독교 기관들에 대한 통제와 행정적 까다로운 요구들은 더욱 늘어가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도 속절없는 기다림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삶은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다. 우리가 언제 아비규환을 경험했냐는 듯이 말이다. 언제 또 몰아칠지 모르는 태풍 앞에 심리적 압박은 크지만, 누구도 크게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 새날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값진 선물임을 되새기게 되었다.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잘 지나오도록 함께 걸어 주셨다. 이제 나는 이 땅에 남은 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훈과 사랑의 성품을 실현하며 살아갈지, 이 땅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한다.



# India

## 내가 여전히 꿈꿀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발생 전,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자 직업 훈련 및 창출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센터를 오픈하고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도시가 봉쇄되었다. 그 후 고국에서 10개월의 안식년을 갖고 올해 3월 말에 입국했다. 이번에도 막 현지 적응과 기존의 에이즈 센터 슬럼 공동체들을 돌아보고 여성직업훈련 사역에 집중하려던 찰나 델타를 경험했다.

작년 나의 부재에도 너무나도 잘 견뎌준 젊은 청년들은 이번에도 그 숨씨를 발휘했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서 여성들은 재봉을 배우고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만들어 필요한 공동체들에게 나눴다. 작은 그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재봉을 연습하여, 서로를 알아간다. 마스크, 필통, 파우치, 에코백을 한땀 한땀 만들어가는 그들의 얼굴이 성취의 기쁨으로 미소가 깃들음을 본다. 준비되어 있는 부지에 작은 센터를 건축하여 더 많은 여성들을 훈련하고, 이 여성들을 통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갈 길이 멀다. 가끔 염려가 물밀듯 밀려올 때, 회복의 발걸음을 시작한 이 소수의 여성들에게 다시 찾아온 미소를 보며 나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20대 초반의 리사는 복음을 듣고 반응했을 때 오빠들로부터 아주 나쁜 경험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리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자라고 성장한 가족들이 있는 공동체 근처는 가지 않는다. 이번 도시봉쇄 기간 동안 화상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가족의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혹시라도 리사의 트라우마가 상기될까 살짝 염려스러웠던 찰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요. 이제 오빠들과 나쁜 기억들보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며 즐겁고 재밌게 지내던 시간들만 기억나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는 회복되고, 주님이 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 줄 수 있다. 리사가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내게도 수많은 도전들이 눈앞에 보여도 인내하며 이끌어 가야 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늘 섬기려는 자세와 예쁜 마음 받을 가진 리사,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이 딸이 앞으로 온전한 회복과 성숙으로 여성들을 이끌 리더 중 한 명이 되기를 나도 꿈꾼다. 이



들이 이 땅의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 살아내 주고 있기에 나 또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안다. 결국 내가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내 눈으로 더욱 선명히 보고 경험케 하신다. 卍



“주님, 이 인도 땅의 치료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붙잡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손안에 굳건히 붙들린 바 된 이 땅임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을 꿈꿉니다. 아버지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서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 ■ 미셔널 BOOK



## 프론티어 선교학

이찬우 지음 / CLC (기독교문서 선교회), 2020년

이찬우 선교사는 인터서브 소속으로 부인 송용희 선교사와 17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에서 연합 단체인 STL와 지역 사회 개발 사역을 감당했다. 2014년부터는 인터서브 국제 본부 리더십 팀에서 남아시아 지역 7개를 담당하는 지역 대표<sup>Regional director</sup>로 섬기고 있다.

**프론티어 선교학** : “현존하는 초교파 선교 단체 중에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인터서브 선교회가 168년간 사역지에서 선교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체득한 선교적 경험과 선교 역사기들의 학문적 연구를 하나님의 선교의 ‘씨실과 낱실’로 규명해 21세기 선교 공동체가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선교의 관점<sup>missiography</sup>이다” (책 표지 소개 중).

**선교 전략가 5인의 눈** : 저자는 인터서브 선교 역사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개신교 선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선교학자 다섯 인물, 라투렛, 랄프 윈터, 앤드류 윌스, 폴 피어슨, 루스 터커의 선교학적 관점을 정리했다. 어떤 단체이든지 공동체의 정체성과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교’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시작하셨고 역사를 이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서브의 역사를 다섯 명의 선교 전략가들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고 유효한 방식이다.

**메리와 비비안 그리고 레이몬드** : 저자는 인터서브의 선교 역사를 개관한 뒤, 곧이어 세 인물을 소개한다. 그들은 인터서브의 창설자 중의 한 사람으로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메리 키네어드, 인터서브의 이슬람권 선교 선구자 비비안 스테이시, 그리고 현대 전환기에서 국제 총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의사 선교사, 레이몬드 윈저다. 특정 인물의 영웅화를 지양하는 인터서브에서 이렇게 인물에 집중 조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시도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인터서브를 시작하셨고, 무슬림 선교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서 인터서브가 국제화하도록 인도하




섰는지를 조명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인터서브의 문화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세 인물을 통하여 인터서브의 역사에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로고에 담긴 정체성**: 저지는 현재 인터서브가 사용하는 로고의 의미를 ‘하나님 선교의 씨실과 날실’로 설명한다. 다섯 명의 선교 전락자들의 유산이 하나님의 선교의 ‘씨실’이라면, 인터서브의 세 인물을 하나님의 선교의 ‘날실’이다. (p.567).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었는데, 옷감을 구성하는 방식이 씨실과 날실이 통섭<sup>consilience</sup>을 통하여 하나의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개신교 선교 역사의 다섯 인물의 관점과 인터서브의 세 인물이 씨줄과 날줄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왔다는 주장이다.

**인터서브의 미시오그래피<sup>missiography</sup>**: 결론적으로 인터서브를 이해하는 요소를 국제화, 교차문화, 총체성, 공동체, 섬김, 파트너십, 여성 사역자 등의 일곱 가지 렌즈로 제시한다. 이 복합적인 렌즈를 미시오그래피로 본다면, 결국 이 표준 줌 렌즈가 ‘인터서브의 프론티어 선교학’이라는 결정체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의 미시오그래피**: COVID-19으로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들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뉴노멀이란 말도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지각변동의 때에 지역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미시오그래피’를 사용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즉,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해 오셨는가?” 하는 렌즈로 역사를 조명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도 여전히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COVID-19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흥분된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 ➤ 인터서브 총체적 시리즈 신간 안내 ➤



데이브 부클리스 저 / 문세원 역

# 나의 지구를 부탁해

창조세계 돌봄은 어떻게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가?

### 창조세계에 대한 이해는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창조세계 돌봄<sup>Creation Care</sup>은 이 책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을 의식하며 청지기로서 지구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창조세계 돌봄은 성경과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국한시키는 기존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로 확장하도록 돕는다.

저자 데이브 부클리스<sup>Dave Bookless</sup> 기독교 환경보호단체 아로샤 국제본부의 신학 디렉터이자 영국 성공회 목사다. 로잔운동 창조세계 돌봄의 글로벌 총진자, 로잔·WEA 창조세계 보전네트워크<sup>ILWCCN</sup>의 공동리더 등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기독교 단체와 신학원, 선교운동이 창조세계 돌봄 사역에 참여하도록 독려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인터서브의 선교적 삶을 위한 동행에 재정으로 동역해주세요.  
인터서브를 후원하시면, 연 2회 발간되는 총체적 시리즈 책을 보내 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서브 후원링크로 가실 수 있습니다.

#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41호  
2021 Fall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중된 섬김

인터서브 기간지 2021년 가을호 통권 141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1. 9. 15.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mailto: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http://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https://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mailto: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http://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https://facebook.com/interservekorea)